

소방의 國際交流와 防災協力

森 淳 —*

國際化는 情報化·高齡化와 함께 21세기를 향하는 일본의 사회전반을 一貫하는 커다란 潮流이다.

언젠가 외교는 국가의 행정분야라는 생각이 강했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경제, 문화,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多層의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는, 국제교류를 국가의 영역문제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주민, 행정, 기업의 각층이 각각 자주적인 활동에 협력하여, 국제화 추진의 주체로 되어가는 점이 필요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가운데에서, 地方自治體도, 당연히 국제화로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안전과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災害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킨다는 소방의 역할은 국경과 민족의 영역을 떠나 세계각국 공통의 것이며,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을 생각할때, 일본의 소방도,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기초로 하여 적극적으로 국제화에 대응하여 가는 점이 기대되고 있다.

소방의 국제화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서, 大災害때의 國際救援協力을 들 수 있는데, 일본에 있어서는 현재, 諸外國에 있어서 대규모화재에 대한 구원활동, 被災國의 요청에 대응하여 즉시 실행할 수 있는 國際緊援援助隊를 편성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1950년에 설립된

技術援助計劃(골롬보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방청에서는 國際協力事業團과 협력하여, 諸외국에 대하여 1970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는 消防行政集團研修를 시작하였으며, 救援援助技術研修 및 消火技術研修등을 自治體消防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근년에는 한층 소방관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 소방발전에 가능한 협력을 하며, 국제적인 責務를 실행해 가려고 한다. 이러한 국가수준의 소방국제협력의 활동에 대해서도, 横浜市소방국은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해외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横浜市소방국이 관려하고 있는 활동내용을 소개한다.

1. 브라질에의 消防技術協力

브라질은 일본과 비교적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지속해 왔던 국가중 하나이다. 이 브라질로 부터 소방에 관한 技術援助要請이 있었던 것은 1978년으로, 都市防災대책의 일환으로서 수도 브라질리아에서의 소방훈련탑의 건설에 대한 기술협력의 요청이었다. 基本設計調査派遣을 시작으로 동경소방청과 함께 제4회의 조사단을 파견하였으며, 건설에 협력하여, 1984년에 2탑의 훈련탑이 완성되어 각각 동경탑, 横浜탑으로 命名되었다. 같은해 6월에는 훈련탑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기술지도요청이 있었으며, 전문가 5명이 實戰訓練指導를 위해 파견되었다. 다음해 8월에는 소방용설비를 활용한 消火방법, 위험물화재의 소화기술과 함께 고층건물에의 진입방법등에 대하여 전문가 5명을

* 横浜市消防局 消防司令

** 本稿는 1989. 7. 23 日本요코하마 國際都市防災會議에서 發表되었음.(譯: 金承濟 教授)

파견하였다. 더욱이 작년에는 훈련탑을 사용하여 중남미 8개국을 대상으로 대원의 안전관리와 교관에 대한 지도 및 水難구조지도를 주목적으로서 3명의 전문가를 파견, 지도를 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장기간에 걸쳐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때문에 브라질과 중남미의 소방의 援助 및 소방기술의 수준향상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기술협력을 계속할 수 있었던 점은 일본의 소방이 높게 평가된 결과이기도 하다.

2. 싱가포르공화국에의 豫防指導協力

싱가폴은 일본의 談路島 정도의 면적에 동경이상으로 고층빌딩이 서있으며, 화재에 의한 커다란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안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재예방이 행정상의 중요한 과제임과 동시에 소방조직도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화재예방시책등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의 전문가의 파견요청이 있었다.

협력이유 및 경위는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소방국의 豫防行政權에 대해서는 건축물에로의 出入檢査權만으로, 건축물의 구조, 소방용설비의 규제등에 관해서는 권한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防災面에서의 不備가 지적되고 있었다. 때문에 建築防火의 기본적인 대책으로서 소방면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살린 行政關與가 필요하며, 싱가포르소방국에 예방부분을 설치하여, 건축당국과 연계를 도모하면서 총합방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의해, 1984년 일본의 消防法制關係의 지도요청에 이른 것이다. 더욱이 1987년에는 防災設備 機能檢査의 수속과 검사 매뉴얼의 작성등에 대하여 전문가가 파견되었다.

파견자에 의하면, 화재예방에 관한 의식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를 느낀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고 報告되어, 문화와 생각의 차이에 기인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싱가포르에의 기술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올렸으며, 건축물의 고층화, 보자화 및 대규모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싱가포르에 있어서, 豫防法規가 매우 엄격하다고 말해지는 일본의 경험이 활용되어진 점은 일본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이상 언급한 기술협력은 약간은 일방통행적인 색채가 짙었지만, 실제로 파견된 직원이 얻은 경험이라는 면을 생각해 볼때 결코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점과 평행하여 실로 雙方向的인 교류협력에도 힘을 쓰고 있으며, 특히 上海市와는, 友好도시라는 점도 있어 항상 밀접한 교류를 계속하며, 서로의 기술수준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중남미 엘살바도르공화국에의 災害緊急援助]

국제협력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긴급원조에 대한 본인의 경험, 그리고 그곳에서 얻어진 본인 자신 나름의 국제화에 관한 생각을 언급하고자 한다.

1986년 4월, 전국에서 많은 자치체소방기관이 참가하여 國際消防救援隊가 발족하였으며, 대규모의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그 실행력을 몸에 익힌 반년후인 10월 11일, 중남미 엘살바도르공화국에 M7.5의 지진이 발생하여, 수도 산사르바도르 및 주변지역에 있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재해에 있어서, 일본정부가 파견한 국제긴급원조팀의 일환으로서, 東京消防廳레스큐(구원)隊員 5명이 선발대로서 지진발생 19시간후에 출발하였으며, 10월 15일에는 응원대로서 横浜市消防局레스큐대원 3명이 출발하였다. 총 8명의 일본소방레스큐팀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각종 救助機資材를 구사하면서 활동하여 被災國의 구원활동에 종사한 셈이다.

국제소방구원대의 발족 및 엘살바도르 파견경위를 살펴보면, 1985년 9월, 멕시코 지진때에 일본은 世界有數의 지진국으로, 국제긴급의료팀의 파견과 물자자금의 원조를 하였으나, 생존자를 구출하는 원조대의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국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반성에서, 의료팀에서 활약한 일원이, 앞으로는 생존자를 探索·救出하는 機資材를 구사하여 구원활동을 실시하는 레스큐팀과 의료팀이 一體가 된 총합팀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움직인

것이 발단이 되어, 그후 외무성을 중심으로 국제 긴급원조체제를 충실히 진행함으로써, 1987년 9월 16일, 법률 제97호 『國際緊援援助隊의 派遣에 관한 法律』이 공포, 실행되었다.

국제긴급원조체제의 정비에 대하여 自治省소방청에서는 市町村의 소방기관이 협력하는 형태로 편성된 國際消防救助隊 『International Rescue Team of Fire Service』를 설립하였다. 이 약칭은 『IRT』로, 일본어의 愛稱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사랑의 손을 뻗친다는 의미로 『사랑(愛)의 손(手)』으로 불리우고 있다.

구조대원은 전국32의 소방본부에서 385명이 소방청에 등록되어 긴급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 법률은 일본의 국제적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대규모의 재해에 대하여 피해국의 요청에 대응하여 원조활동을 하는 인원을 파견하는데 있어서의 근거 및 수속을 명확히 하며, 구원활동을 포함한 국제긴급원조체제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방기관에 대해서는, 외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소방청장관이 직원에게 국제긴급원조활동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市町村에 대하여 소방기관의 직원에 국제긴급원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수속등을 명기한 법률이다.

한편, 엘살바도르공화국의 지진때에 활동한 국제긴급원조팀은 연일 현지TV등으로 활약이 보도되었으며, 귀국후에는 엘살바도르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장을 증정받는등의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이러한 귀중한 체험은 금후 世界有數의 지진국인 일본의 소방이 행하는 구조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하의 海外被災地에의 파견 및 현장에서의 활동에 대한 체험을 돌아켜보며, 그곳에서 얻어진 교훈등을 언급하였다.

(1) 出勤連絡

先遣隊인 동경소방청팀의 활동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었던 10월 14일 17시 55분, 응원대로서의 출근요청이 들어왔다. 横浜市에서는 해외 파견구조활동이 처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국관계자의 철야사무작업과 반입기자재의 조

달, 포장하는 작업은 대단히 힘들었다.

재해가 발생하였을때, 즉시 출동가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며, 휴대機資材의 비축과 梱包, 특히 재해종류별에 대응하는 기자재를 선별한 포장은 중요하다고 느꼈다.

(2) 成田공항에서 국제협력사업단의 池田실장으로 부터 『구출활동만이 아니라 外交의 일환으로서 엘살바도르공화국에 대하여 반입기자재의 지도기술을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들의 기자재를 모두 공급해주기 바란다』고 요청받았으며, 이점이 우리들 활동의 하나의 특징이며,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매우 적절한 處置였다.

被災國 도착까지의 각 경유지에서의 700kg을 넘는 機資材를 쌓아올리는 작업은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었다. 운송수단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느꼈다.

(3) 救助活動

도착하여 1시간25분후에는 활동을 개시하였는데, 활동현장인 루벤다리오빌딩은 마치 提燈을 켜놓은 듯한 倒塌상황이었다.

구원활동은 각국 구조대와의 공동작업이었으며, 日本國搬入의 機資材를 구사한 건축물상부에서의 기와와 자갈의 제거작업이 중심이 되었다. 先遣隊의 동경소방청팀은 생존자 2명발견의 공적을 이루었으나, 응원대인 우리들은 생존자구출조차 할 수 없었으나, 구조활동과 병행하여 피해국 소방대원에의 반입기자재의 취급지도 및 引渡임무는 무사히 이룰수 있었다. 그리고 이 점이 승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총합적으로 생각하여, 우리들의 활동은 피해국의 인적피해의 경감과 금후의 체제구성, 그리고 국제친선에도 미력하지만 공헌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4) 教訓으로서 느낀점

1. 원조활동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실시하는 한에서는 일각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파견대의 규모는, 隊員의 피로와 활동 能率면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대원의 안전관리는 중요한 요건이다. 해외에서의 활동은 대원의 自覺에 맡길 수 있는 범위를 넘는점이 있어, 보건위생, 정치환경등에 충분한 배려를 한 파견이어야 한다.

4. 일본과 피재국민 및 구원제국과의 문화, 습관의 다름에 따라 활동방법의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점이 남겨진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5. 활동종료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며, 리더의 적절한 판단과 각방면과의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다.

개개의 문제와는 별도로 본인이 가장 강하게 느낀점은, 자치체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 통용되

는 직원양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매년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체험을 쌓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자치체에 있어서도 매우 커다란 재산이 되리라 생각한다. 동시에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자치체의 활동을 이해하여 주는 시민의 존재이다.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체의 責務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국경을 초월한 협력은 서로 도와가는 네트워크로서 성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느꼈다.